



‘안데스가 선사하는 보물 ‘TESORO’

테소로 샤르도네

TESORO CHARDONNAY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 우고 벨리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4.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사과, 망고, 레몬 즙과 같은 아로마가 독보적이며 카라멜의 힌트도 느껴진다. 미디움 바디의 와인이며 버터리한 크리미함의 마지막 피니시가 여운을 주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 부드러운 치즈/단단한 치즈/ 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제품설명



트라피체 와이너리는 탐험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아르헨티나의 빈야드에서 항상 새로운 보물을 발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였다. Tesoro는 이러한 트라피체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와인으로 스페인어로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22년 새롭게 런칭한 레인지이다.

가지와 포도 선별작업을 거친 뒤에 공기 압착을 진행한다. 28일 동안 17도에서 시작하여 15도의 온도로 떨어질때까지 발효를 진행한다. 말산 발효를 진행하고 나서 오크배럴 (95%의 프렌치 오크 통과 5%의 아메리칸 오크통)과 foudres에서 12개월 동안 숙성 후 출시한다.

수상내역



202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22빈티지 90점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0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톨랑과 합작으로 ‘이스카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